

또..., 완도 '괴물'에 흑염소 3마리 희생

감시카메라 설치, 촬영 성공 못해

'괴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완도군 생일도(본보 8월24일자 6면)에서 흑염소들이 또다시 처참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생일도 서성리에서 황인철(82)씨의 흑염소 3마리가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뜯어먹힌 채 발견됐다. 죽은 흑염소 중 2마리는 머리만, 나머지 1마리는 발목만 남아있었다. 이곳은 지난 23일 황번하(57)씨의 흑염소 1마리가 뼈만 남은 채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이다.

황씨는 "현장에는 뼈와 내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멧돼지는 내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완도군과 전남밀렵감시단은 발자국을 근거로 '괴물'의 정체가 멧돼지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편 SBS '생방송투데이' 팀은 지난 25일 금곡리에 야간 적외선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괴물'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촬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생활정보지에 무단보 대출 광고

억대 가로채 2명 검거

담양경찰 담양경찰은 28일 생활정보지에 무단보 대출 광고를 낸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상습사기)로 문모(28·여·수시·화양면)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6월부터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무담보 대출, 수수료 10%'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상당자 83명으로부터 수수료만 받고 대출은 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상담자인 서모(여·35)씨 등 3명의 명의로 만든 통장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kwangju.co.kr



어민들 항만 봉쇄

광양만에서 재첩 등을 채취하는 어민 100여 명이 28일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앞바다~광양항에 이르는 해상에서 어선 80여 척을 동원,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뒷편에 이를 저지하는 해경 경비정들이 보인다.

어선 80척 광양앞바다 시위 컨테이너 수출입 차질 우려

어민들 "재첩 등 맨손어업 불허면 계속 강행"

물동량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광양항이 어민들의 항만 봉쇄 시위로 인해 화물 운송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받고 있다. 재첩 등 맨손어업 허가 문제를 놓고 어민과 행정기관이 팽팽하게 대립, 선박을 동원한 해상시위가 잇따라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 봉쇄 시위=광양만권 어업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현·이하 대책위) 소속 어민 100여 명은 28일 오전 9시10분께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앞바다에서 어선 80여 척을 동원,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진월면 망덕포구를 출발, 광양

시 태인동 섬진대교를 지나 광양항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출동한 해경 경비정 36척(목포 3, 통영 9척 포함)과 헬리콥터에 의해 저지됐다. 이 과정에서 1.7t급 복성호(선주 도모씨·39)가 헬리콥터의 저공비행과 경비정이 일으킨 파도로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어민들은 오진선 광양경찰서장과 전남도의회 남기호 의원(광양) 등의 중재로 29일 이성용 광양시장과 등 면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후 7시 현재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광양·여수·하동·남해 등 4개 시·군 어민 2

천여 명과 320여 대의 어선을 동원, 대규모 항만 봉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맨손어업 합법화 ▲광양만 항계 내 조업 인정 ▲2항로(여수~광양 15km) 공사 중지 ▲광양만 입구 등 특정 해역 보상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우려=소형 선박들의 해상시위가 장기화될 경우 광양항의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광양항은 포스코 광양제철 원료 및 제품과 석유화학 원료 제품을 실은 일반 화물선 110척과 컨테이너선 10여 척 등 대형 선박(2만~10만t급)이 하루 120여 척 드나들고 있다. 광양항을 통한 하루 평균 화물 처리량은 540만t에 달하고 있다.

선박 충돌과 전복 등 해난사고의 위험

맨손어업 분쟁 일지

- ▲2005년 4월4일=광양시 도월리·세종리 주민 513명 광양시청에 '맨손어업 필증' 교부 신청서 제출.
- ▲ 4월14일=광양시, '국가산업단지 조정에 따른 보상 완료'를 이유로 불허 통보.
- ▲ 8월8일=어민 513명,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 제기.
- ▲2006년 6월22일=어민 측 승소.
- ▲ 8월1일=광양시청 항소.
- ▲ 8월4일=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곤란하다'는 입장 통보.
- ▲ 8월16일=어민 20여 명, 어선 11척으로 1차 해상시위.

도 커지고 있다. 또 대규모 해상시위 때 타지역 해양경찰의 인력·장비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어 서남해안의 ▲불법어로 및 밀입국 단속 ▲인명구조 등 중요한 해상경비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광양=김춘호·이승배 기자 kco@kwangju.co.kr

광주 'S중 납품 비리' 관련 교장·행정실장 곧 소환

전남지방경찰청

광주 S중학교 기자재·비품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광주교육청의 자체 감사 성과를 얻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25일 윤모 행정실장에 이어 28일 박모 교장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장과 윤 실장은 학교 측이 11개 납품선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만~720만 원씩 모두 2천58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만한 문서 작성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이다.

윤 실장은 감사시 조사에서 "(문제의 문건은) 박 교장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반면 박 교장은 "윤 실장이 전적으로 혼자 작성해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29일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계좌추적권이 없는 등) 시 교육청 감사권한의 한계와 '제 식구 감싸기'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에 주목, 이번 사건을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S중에서 가져온 납품 관련 회계장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동안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다. 또 또모간 교장과 행정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침 (6913)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상품권 유통 오락실 업주 입건

영광경찰은 28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불법 상품권을 유통한 성인 오락실 업주 김모(여·39·영광군 영광읍)를 부속속 입건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전대서 도둑맞은 물품 주인 찾습니다"

○경찰이 전남대학교 내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를 검거한 뒤 대학 홈페이지에 '물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눈길.

○2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홈페이지 '커뮤니티' 메뉴의 '생활광장-분실물센터 게시판'에 '도서관에서 디지털 카메라·전자사전·MP3 플레이어 등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관에서 전자사전 등을 30여 차례 훔친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Well-being
가메스시

건강기능식품관리사

10월 22일 시험확정, 초창기시험으로 취득쉬움

1.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안전성
2.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3.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소비 촉진
4.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상담 및 교육

10월 22일 시험확정, 초창기시험으로 취득쉬움

1.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안전성
2.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3.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소비 촉진
4.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상담 및 교육